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1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2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선선한 새벽이나 저녁에 침묵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내 지친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창 45:1~15 / 시 133 / 롬 11:1~2a, 29~32 / 마 15:(10~20), 21~28

마 25:31~40

오늘 식당 봉사 : 유경순 이은옥 박혜경 박미란 하미림 송형운 김훈동
 다음 주 식당봉사 : 박미영 문현미 이은주 윤정화 박미란 민병배 박범희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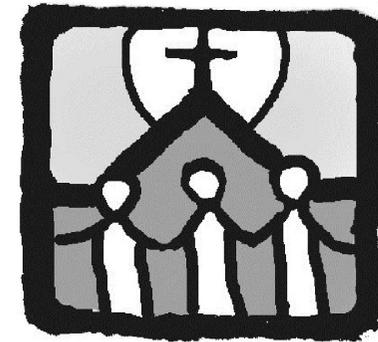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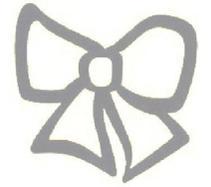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심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위와 온갖 폭력적인 사태들 때문에 지쳤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는 간밤의 바람으로 시원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치고 상한 이웃에게 쾌청한 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속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의 품으로 세상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못을 얼버무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활함 때문에 이 사회에 커다란 불신의 벽이 쌓였습니다. 불의한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와 진솔하게 소통하려는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게 하시고, 종국에 관용과 용서의 정신으로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금순 김남종 오복순 김신실 김애경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김정길 최숙화 김정수 김종철 고영애 김필순 민지희 박창운
 허정윤 방준 백성래 심상숙 우순덕 유금주 유상진 유은정 윤성종
 김윤정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범석 류정욱 이부곤 이순용 이에서
 이용현 이우원 옥귀희 임호성 정영례 정현모 최양순 한상경 한인철
 조운숙 허준호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대규 박경애 김진중 김흥기 박창운 허정윤 방문성
 박혜경 우순덕 이광석 이경희 이수련 이유일 김미희 전인섭 최미자
 흥복선 무명

생일감사헌금

김경수 정영선

녹색꿈헌금

김태정 박호규 강영님 이희원 장원호 박성희 무명3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섬	섬
	곽권희	김윤수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나

- 김광규

살펴보면 나는 /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 나의 아들의 아버지고 / 나의 형의 동생이고 / 나의 동생의 형이고 /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 나의 누이의 오빠고 /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 / 나의 조카의 아저씨고 / 나의 선생의 제자고 / 나의 제자의 선생이고 / 나의 나라의 납세자고 /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 나의 친구의 친구고 / 나의 적의 적이고 / 나의 의사의 환자고 / 나의 단골술집의 손님이고 / 나의 개의 주인이고 / 나의 집의 가장이다

그렇다면 나는 / 아들이고 / 아버지고 / 동생이고 / 형이고 / 남편이고 / 오빠고 / 조카고 / 아저씨고 / 제자고 / 선생이고 / 납세자고 / 예비군이고 / 친구고 / 적이고 / 환자고 / 손님이고 / 주인이고 / 가장이지 / 오직 하나뿐인 / 나는 아니다

과연 / 아무도 모르고 있는 / 나는 / 무엇인가 / 그리고 / 지금 여기 있는 / 나는 / 누구인가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웃의 목소리를 넓은 품으로 듣고,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서로를 성심껏 섬기며 사십시오.

아멘. 못사람 위에서 군림하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며 함께 어깨를 견고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설교 : 김기석 목사 기도 : 이명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최다미 선생 이은주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조문규 황현성 임영선 진정숙 이오복
	헌금위원	김인걸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타인과 공감하는 자인가, 홀로 만족하는 자인가

사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목표, 즉 행복을 추구한다. 진짜 문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이다. 모든 인간은 그가 어떤 시대, 어떤 조건, 어떤 문화 속에서 생활하건 두 가지 길 가운데 선택하게 마련이다. 타인들 없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들과 더불어 행복할 것인가. 혼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과 공감할 것인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해야 할 이 선택은 그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실체를 결정짓고 우리를 만든다.

...

엠마우스가 생겨난 초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를 지켜보던 어느 나이드신 벨기에 사제가 아침 7시경에 나를 불렀다. “신부님, 얘기를 꼭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길래 한 형제가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도시의 경찰서장이더군요. 경찰서장은 얼마 전에 술이 취해 며칠을 구치소에서 보낸 적이 있는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출한 아주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왔더군요. 정신이상자인 남편이 그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아이가 넷이나 있습니다. 그분이 목을 만한 데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형제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서장에게 대답했습니다. ‘서장님, 그 아주머니와 아이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리고는 공동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료들은 일어나서 깨끗한 시트로 침대를 정리하더니 아이들과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낡은 신문지 더미 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잠을 청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침에는 복도에 선 채로 커피를 마시면서 ‘입 닥쳐, 소리내지 말라구, 애들이 자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그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한다-인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되는 그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

더구나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은 시간의 암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암흑에서 빠져나와 빛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온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타인과 공감하는 자인가 아니면 홀로 만족하는 자인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구분은 ‘홀로 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 사이에, 타인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있다. 어떤 ‘신자’들은 ‘홀로 족한 자’들이며, 어떤 ‘비신자’들은 ‘공감하는 자’들이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너는 홀로 족하기를 원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홀로 족하거라!’ 그와 반대로, 천국은 무한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에 에워싸인 채 나누고 교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영생은 죽음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공감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자신에 만족한 채 매일 매일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바로 현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

삶에 대해 몽상하지 말자. 삶을 만들어가자. 공허한 말에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리하여 시간의 어둠에서 빠져나갈 때, 모든 사랑의 원천에 다가서는 우리의 마음은 타는 듯 뜨거우리라.

- 피에르 신부, <단순한 기쁨> 중에서